

**on the NET**  
Network Intelligence for Leading Networkers



NetEvents 2006 Global Press Summit

## IMS와 차세대 네트워크의 미래

이대영 기자 | dylee@infoage.co.kr

12월 1일, 넷이벤트 인터내셔널이 주최한 넷이벤트 2006 글로벌 프레스 서밋은 한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일본,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등 십여 개국의 IT 전문 기자들과 전 세계 통신관련 업체, 리서치 기관 등이 모여 통신 시장의 차세대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Wi-Fi, 와이맥스, 라스트 마일 등 무선 통신에 대한 주제를 두고 열띤 토론의 장을 열었다.

### 통신 시장과 차세대 기술 관련 이슈 토론

1996년부터 시작한 넷이벤트의 이 행사는 전세계 네트워크, 통신, 컴퓨터 산업 관련 업체들의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IT 전문 기자, 애널리스트 등과 함께 심도깊은 주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06년 홍콩 ITU 텔러룸 월드가 열리기 바로 2일 전에 개최돼 통신 시장과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련 이슈로 대화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세계에서 통신 기술의 적용이 가장 빠른 한국의 통신관련 업체가 없었다는 점은 차세대 통신 기술 흐름을 다룬다는 취지를 무색케 했으며, 패널 토의에서도 심도 깊은 대화라기보다는 시간에 쫓겨 주제를 끝들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업체와 기자의 테이블 토론 시간에서도 주최측이 강제놓은 스케줄대로만 움직이게끔 해 경각 취재가 필요한 업체와 사람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업체들은 각각 기사를 상대로 회사 소개와 제품 설명만 13번이나 반

복해야 했다. 이들이 제시한 선도적인 기술은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나 통신 업체들이 이미 도입해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세우는 기술과 네트워크 솔루션은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상용화된 기술과 서비스였다.

특히 차세대 모바일 메시징 업체인 팜토우 업체를 1억 3900만 달러에 인수한 뉴스타의 경우, 62억 달러 규모의 SMS 시장에 진출하면서 한국 시장에서도 자신있다고 밝혔다. 하

### 행사 개요

일시 | 2006년 12월 1일~2일  
장소 | 홍콩 모시온 호텔  
주최 | 넷이벤트 인터내셔널  
참여 업체 | EC텔레콤, 티빙모인트/SCOM, 솔윈드로, 델콤 SA, 이트릭스, 엑셀리스트네트웍스, 임원스타, 컴벌스, 레드백네트웍스, 인디네트웍스, 뉴스타, MEF